

# 군 병사의 따돌림 피해와 욕구좌절의 관계: 사회적지지의 중재효과

신소홍\*

<sup>1</sup>경북과학대학 간호학과

## Victims of Bullying in the Military and its Relationship with Frustration: Mediation Effects of Social Support

So-Hong Shin\*

<sup>1</sup>Department of Nursing, Kyoungbuk science college

**요약** 본 연구는 군 병사의 따돌림 피해와 욕구좌절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중재효과를 파악하고자 실시한 서술적 조사 연구로 육군 병사 31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따돌림의 평균점수는 2.23점, 사회적지지의 평균점수는 3.60점, 욕구좌절의 평균점수는 2.75점이었다. 따돌림과 사회적지지, 욕구좌절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따돌림의 하위변인 모두에서 욕구좌절에  $p<.05$ 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향력은 심리적괴롭힘( $\beta=.340$ ), 인간관계따돌림( $\beta=.149$ ), 직무따돌림( $\beta=.130$ ) 순이었다. 사회적지지의 중재효과 검증에서 따돌림×사회적지지 하위변인 상호작용 항 모두에서 욕구좌절에  $p<.01$ 에서 유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따돌림×구성원지지( $\beta=.456$ ) 상호작용 항에서 가장 높은 영향력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따돌림 피해를 인식하는 병사들을 위해 상사나 동료들의 적극적 지지가 이루어질 때 무형적 전력 확보와 구성원 간 단결이 담보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316 soldiers in the South Korean Army and the mediation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bullying and frustration. Bullying, social support, and frustration showed average scores of 2.23, 3.60, and 2.75 points, respectively.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bullying, social support, and frustration. All of the subordinate variables of bullying showed significant impacts on frustration ( $p<.05$ ), with psychological harassment showing the greatest impact ( $\beta=.340$ ), followed by bullying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 $\beta=.149$ ) and bullying at work ( $\beta=.130$ ). In all the interaction items of the subordinate variable bullying × social support, bullying had a significant impact on frustration at  $p<.01$ , while the highest impact was shown in the interaction item of bullying × member support ( $\beta=.456$ ). The results imply that intangible combat power and solidarity among soldiers can be guaranteed only when superiors and peers provide full support for soldiers who are victims of bullying.

**Keywords** : Bullying, Frustration, Military, Social Support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국가 안위를 주 임무로 하는 군 병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가족으로부터 분리와 사회로부터 격리된 심리적 부담감이 내재된 상태로 통제된 생활을 해야 하므로 욕구에 대한 불만이 나타날 수 있다. 자신의 욕구가 외부로부터 장

해를 받아 환경에 대한 대처 어려움으로 욕구좌절이 일어나면서[1], 심리적 통제가 높아져 자율적 욕구가 좌절되는데 이는 자신의 관심과 상관없이 기준이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2]. 그러므로 군 병사들은 욕구좌절 유발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병사가 통제된 군 생활에서 욕구좌절을 경험하였고[3], 소속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게 하는 좌절된 소속감(욕구좌절)이 자살생각 영향요인이다[4].

\*Corresponding Author : So-Hong Shin(Kyoungbuk science college.)

Tel: +82-54-979-9531 email: [ssh646754@nate.com](mailto:ssh646754@nate.com)

Received February 29, 2016

Revised March 14, 2016

Accepted April 7, 2016

Published April 30, 2016

특히 욕구좌절에 대한 적응기제가 실패를 거듭하면 심리적 긴장감이 쌓여 비굴한 행동, 화를 내는 등의 반응을 보이는데 이것이 심해지면 부정적 사태가 되어 신경증이 될 수 있다[5]. 따라서 병사들의 이와 같은 문제에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욕구좌절 요인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동안 병사들에 관한 연구에서 군 생활만족 영향요인으로 집단갈등, 대인관계, 스트레스 해소, 역할갈등, 상급자와 갈등 등이 있으며[6], 군 생활적응요인으로 가족건강성,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7], 위험요인으로 군 생활스트레스와 구타 및 가혹행위, 보호요인으로 정서적 환경지각, 군 관련 지지와 가족지지[8]에 대한 연구가 있으며, 이 외에도 자아탄력성, 우울, 따돌림 등으로 파악되었다.

병사들의 복무환경 자체가 성인조직의 은밀하고 치밀한 따돌림과 폭력적 따돌림까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9], 언어폭력 가해자들은 후임병 관리책임에 대한 부담감이나 위계질서 유지목적 등 때문에 언어폭력을 한다[10]. 따라서 군 조직 특성상 따돌림 발생 가능성이 내제되어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군 조직의 심각한 따돌림은 군기사고, 자살, 난동과 같은 극단적 결과 초래로 군의 단결과 사기를 크게 저하시키고[11], 따돌림 피해는 우울, 불안, 외로움 등의 수준을 높이고, 자기 조절력과 문제해결력 수준을 낮추어 부정성을 겪게 한다[12]. 이에 병사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따돌림 피해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따돌림 피해는 군 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상관성이 있다고 밝혔다[12]. 그렇지만 따돌림 피해와 욕구좌절과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가 전혀 보고되지 않아 이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한편 인간은 다른 사람과 사회적 관계를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써 타인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자극들은 인간발달을 촉진하거나 제지함으로써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13]. 따라서 통제 속에 생활하는 병사들에게 적절한 사회적지지는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사회적지지는 병사들의 군 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며[7, 14], 군 생활만족 증진을 위해 사회적지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15]. 하지만 따돌림 피해와 욕구좌절과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를 중재효과로 알아 본 연구 또한 전혀 보고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에 기초하여 군 병사들의 따돌림 피해와 욕구좌절 그리고 사회적지지에 대하여 고찰되

었지만 이들 관계에 대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따돌림 피해와 욕구좌절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들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중재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따돌림 피해경험으로 욕구좌절을 겪고 있는 병사들에게 중재요인 규명은 원만한 군 생활 수행의 순기능적 역할을 할 것이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본 연구는 군 병사들이 군 복무 중 욕구좌절이 유발되면 군 생활뿐만 아니라 군 조직운영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규명과 대처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이다. 이는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예방적 차원과 원만한 군 조직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주요변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 2.1.1 따돌림 피해와 욕구좌절과의 관계

군 병사의 직무따돌림, 인간관계따돌림, 심리적 위협의 피해는 군 생활적응에 부정 상관성을 보였으며[12], 집단따돌림은 병사들의 직무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9]. 그리고 따돌림은 조직에 대한 몰입과 조직시민행동에 감소현상을 보였다고 하여[16], 따돌림은 군 병사의 욕구좌절감을 높이는 영향요인으로 시사되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따돌림 피해는 욕구좌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군 병사의 직무따돌림은 욕구좌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군 병사의 인간관계따돌림은 욕구좌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군 병사의 심리적괴롭힘은 욕구좌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1.2 따돌림 피해와 욕구좌절 간에 사회적지지의 중재관계

군 병사 동료의 지원은 역할갈등과 따돌림의 관계에서 유의한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16], 사회적지지는 군 생활적응과 정적상관을 보였다[17]. 그리고 자기존중감은 조직 환경과 집단따돌림의 관계에서

부분적 조절효과를 보였다[9]. 이는 사회적지지가 따돌림과 욕구좌절 간에 중재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따돌림 피해가 욕구좌절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지지는 중재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2-1. 따돌림 피해와 욕구좌절 간에 가족지지는 중재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2-2. 따돌림 피해와 욕구좌절 간에 친구지지는 중재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2-3. 따돌림 피해와 욕구좌절 간에 군 구성원지지는 중재효과가 있을 것이다.

### 2.1.3 연구모형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가설을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Fig 1과 같이 연구모형을 도식화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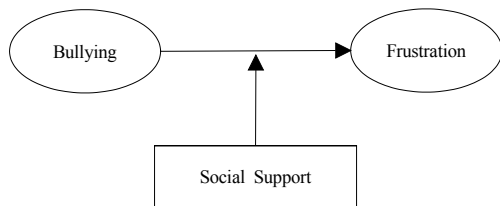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 2.2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대상자는 일 지역 육군에 복무하는 병사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자가 민간인이기 때문에 직접 조사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군 보안문제가 있으므로 설문내용에 대하여 군 관계자에게 사전에 검토를 받았다.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2015년 11월 4일부터 11월 16일까지 이루어졌다. 설문지를 배부·회수하는 군 관계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작성에 대한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병사들에게 고지토록 하였으며,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설문에 자발적 참여의사가 있는 병사들을 대상으로 하되 설문응답 중 하사라도 거부할 수 있으며 익명과 비밀보장에 대하여 공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설문지를 빈 봉투에 넣어 배부하고 응답 후 밀봉하여 회수하도록 하여 최대한 병사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359부를 배부하여 327부 회수하였으며, 통계적으로 부적합한 11부를 제외하고 316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 2.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방법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각 변수는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점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 2.3.1 따돌림

따돌림은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대인관계 속에서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괴롭히는 문제행동이다[12]. 본 연구에서는 Leymann[18]이 개발한 LIPT(Leymann Inventory of Psychological Terrorization)를 번역한 최재승[16]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5문항으로 이루어졌고, 하위변인 직무따돌림, 인간관계따돌림, 심리적괴롭힘의 각각 5문항이다. 최재승[16]의 연구에서 직무따돌림 신뢰도 Cronbach's  $\alpha$  .84, 인간관계따돌림 신뢰도 Cronbach's  $\alpha$  .83 심리적괴롭힘 신뢰도 Cronbach's  $\alpha$  .86이었다. 본 연구는 Cronbach's  $\alpha$  .94이었다.

### 2.3.2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타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랑, 인정, 정보, 상징적 또는 물질적 원조 등 모든 형태의 긍정적 자원으로 인간의 적응에 중요한 기능을 포함하는 것이다[17]. 본 연구에서는 Dubow & Ulman[19]의 사회적지지 평가척도(Social Support Appraisals Scale)를 선행연구에서 수정하고 이용일[17]이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2문항으로 이루어졌고, 하위변수 가족지지, 친구지지, 군 구성원지지 각각 4문항이다. 이용일[17]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90이었다. 본 연구는 Cronbach's  $\alpha$  .81이었다.

### 2.3.3 욕구좌절

욕구좌절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욕구가 방해받거나 저지당하는 것이다[20]. 본 연구에서는 Maslow & Alderfer의 욕구좌절 요인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병부대 실정에 맞게 차현주[20]가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35문항으로 이루어졌고, 하위변수 존재욕구 좌절 14문항, 관계욕구좌절 13문항, 성장욕구좌절 8문항이다. 차현주[20]의 연구에서 존재욕구좌절 신뢰도 Cronbach's  $\alpha$  .85, 관계욕구좌절 신뢰도 Cronbach's  $\alpha$  .85, 성장욕구좌절 신뢰도 Cronbach's  $\alpha$  .83이었다. 본 연구는 Cronbach's  $\alpha$  .72이었다.

### 2.4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PC 22.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따돌림, 사회적지지, 욕구좌절은 기술통계(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alpha$ 를 구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따돌림, 사회적지지, 욕구좌절의 차이는 ANOVA를 사용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를 하였다. 따돌림, 사회적지지, 욕구좌절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구하였다. 그리고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따돌림 피해가 욕구좌절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지지의 중재효과를 검증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군 병사는 총 316명으로 연령은 22세가 143명(45.3%)으로 가장 많았으며, 23세 이상 115명(36.4%), 21세 이하 58명(18.4%)이었다. 계급은 일병이 147명(46.5%), 상병 84명(26.6%), 이병 54명(17.1%), 병장 31명(9.8%)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 재학이상이 160명(50.6%)으로 과반을 차지하였으며, 전문대졸

125명(39.6%), 고졸이하 31명(9.8%)이었다. 형제 수는 2명이 170명(53.8%)으로 과반이 넘었으며, 외동 112명(35.4%), 3명 이상 34명(10.8%)으로 나타났다. 출생순위는 첫째가 176명(55.7%)으로 가장 많았으며, 둘째 114명(36.1%), 셋째 이상 26명(8.2%)이었다. 직접 또는 간접피해 경험에서 기타(막말, 언어폭력 등)가 194명(61.43%)으로 가장 많았으며, 구타 및 가혹행위 97명(30.7%), 왕따 25명(7.9%)으로 나타났다[Table 1].

### 3.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따돌림, 사회적지지, 욕구좌절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따돌림, 사회적지지, 욕구좌절의 차이는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따돌림의 평균점수는 2.23점이었고 연령, 계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후검정결과 연령이 23세 이상보다 22세가 높았으며 이보다 21세 이하에서 높게 나타났다( $F=114.608, p<.001$ ), 계급이 상병과 병장보다 일병과 이병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F=77.515, p<.001$ ).

사회적지지의 평균점수는 3.60점이었고 연령, 계급, 형제 수, 출생순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후검정결과 연령이 22세와 23세 이상보다 21세 이하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F=33.874, p<.001$ ), 계급이 일병, 상병, 병장보다 이병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F=23.116, p<.001$ ).

Table 1. Differences in key variables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pec.	n=316(%)	Bullying			Social Support			Frustration			
		Mean±SD	F (p)	Scheffe	Mean±SD	F (p)	Scheffe	Mean±SD	F (p)	Scheffe	
Ages	Under 20 years of age	58(18.4)	2.41±.26 <sup>a</sup>	114.608 (<.001)	c<b<a	3.86±.13 <sup>a</sup>	33.874 (<.001)	b<a	2.96±.08 <sup>a</sup>	251.298 (<.001)	c<b<a
	22 years old	143(45.3)	2.33±.20 <sup>b</sup>			3.53±.21 <sup>b</sup>			2.76±.08 <sup>b</sup>		
	over 23	115(36.4)	2.02±.10 <sup>c</sup>			3.55±.36 <sup>b</sup>			2.64±.09 <sup>c</sup>		
Ranks	Private	54(17.1)	2.42±.27 <sup>a</sup>	77.515 (<.001)	b<a	3.87±.11 <sup>a</sup>	23.116 (<.001)	b<a	2.97±.07 <sup>a</sup>	186.381 (<.001)	d<c<b<a
	private first class	147(46.5)	2.33±.20 <sup>a</sup>			3.53±.21 <sup>b</sup>			2.76±.08 <sup>b</sup>		
	corporal	84(26.6)	2.04±.10 <sup>b</sup>			3.58±.41 <sup>b</sup>			2.62±.09 <sup>d</sup>		
	sergeant	31(9.8)	1.96±.08 <sup>b</sup>			3.48±.11 <sup>b</sup>			2.68±.09 <sup>c</sup>		
Education	High school	31(9.8)	2.31±.28	2.038 (.132)		3.60±.30	1.001 (.369)		2.80±.15	1.789 (.169)	
	2-year college	125(39.6)	2.21±.22			3.57±.37			2.75±.14		
	university and higher	160(50.6)	2.24±.26			3.62±.20			2.75±.13		
Number of siblings	Only child	112(35.4)	2.24±.26	.144 (.866)		3.65±.19 <sup>a</sup>	4.238 (.015)	b<a	2.80±.15 <sup>a</sup>	8.400 (<.001)	b<a
	two	170(53.8)	2.23±.23			3.58±.33 <sup>ab</sup>			2.73±.13 <sup>b</sup>		
	three and more	34(10.8)	2.24±.28			3.50±.29 <sup>b</sup>			2.75±.12 <sup>ab</sup>		
Birth order	First child	176(55.7)	2.23±.25	.121 (.886)		3.65±.32 <sup>a</sup>	12.002 (<.001)	b<a	2.75±.14	.883 (.415)	
	second child	114(36.1)	2.24±.23			3.49±.22 <sup>b</sup>			2.75±.14		
	third child or younger	26(8.2)	2.24±.31			3.67±.23 <sup>a</sup>			2.79±.15		
Bullying experience	Beating and harsh treatment	97(30.7)	2.18±.25	2.807 (.062)		3.57±.20	.503 (.605)		2.72±.13	3.860 (.022)	
	ostracism	25(7.9)	2.24±.25			3.62±.29			2.76±.19		
	other (verbal abuse, etc.)	194(61.4)	2.26±.24			3.61±.32			2.77±.13		
	total		2.23±.25			3.60±.29			2.75±.14		

형제 수가 2명과 3명 이상보다 외동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F=4.238, p=.015$ ). 사후검정결과 출생순위 둘째보다 첫째와 셋째 이상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F=12.002, p<.001$ ).

욕구좌절의 평균점수는 2.75점이었고 연령, 계급, 형제 수, 피해경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후검정결과 연령이 23세 이상보다 22세가 높았으며 이보다 21세 이하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F=251.298, p<.001$ ), 계급이 상병, 병장, 일병보다 이병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F=186.381, p<.001$ ). 형제 수에 대한 사후검정결과 2명과 3명 이상보다 외동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F=8.400, p<.001$ ). 피해경험은 구타 및 가혹행위와 왕따보다 언어폭력 등에서 점수가 높았다( $F=3.860, p=.022$ ).

### 3.3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연구 대상자의 따돌림, 사회적지지, 욕구좌절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2와 같다. 따돌림과 사회적지지( $r=.153, p<.01$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욕구좌절( $r=.471, p<.01$ )과도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 그리고 사회적지지와 욕구좌절( $r=.285, p<.01$ )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Table 2. Correlation for major variables each other

Spec.	Bullying	Social Support	Frustration
Bullying	1		
Social Support	.153**	1	
Frustration	.471**	.285**	1

\*\* :  $p<.01$

### 3.4 따돌림 피해가 욕구좌절에 미치는 영향

연구 대상자의 따돌림 피해가 욕구좌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따돌림의 하위변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직무따돌림( $t=2.300, p=.022$ ), 인간관계따돌림( $t=2.666, p=.008$ ), 심리적괴롭힘( $t=6.218, p<.001$ )이 유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영향력은 심리적괴롭힘( $\beta=.340$ )이었으며, 인간관계따돌림( $\beta=.149$ ), 직무따돌림( $\beta=.130$ )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영향 요인들이 욕구좌절을 22.9%설명하였다[Table 3]. 즉 상관이나 선임동료로부터 폭언이나 매우 어려운 일을 부여 받거나 수치심 등을 느낄 때 가장 높은 욕구좌절감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3. The Effects of Bullying on Frustration

Spec.	$\beta$	t	p
bullying at work	.130	2.300	.022
bullying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149	2.666	.008
psychological harassment	.340	6.218	<.001
R <sup>2</sup>		.229	
F(p)		32.237 (<.001)	

### 3.5 따돌림 피해가 욕구좌절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지지의 중재효과

따돌림이 욕구좌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지지의 중재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먼저 독립변수인 따돌림을 투입하고(모델 I), 다시 중재변수인 사회적지지를 투입하였다(모델 II). 그리고 독립변수인 따돌림과 중재변수인 사회적지지의 하위변수를 곱한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모델 III)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모델의 F검정을 통해 모델 I과 모델 II 그리고 모델 III의 F값이  $p<.001$ 에서 모형이 유의하고, Durbin-Watson값이 1.269로 2와 가까워 종속변수를 설명하는데 적합하였다. 또한 공차 한계 값은 .194-.976으로 1.0이하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계수(VIF)가 1.024-5.159로 기준인 10.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I에서 독립변수인 따돌림( $\beta=.471, p<.001$ )이 욕구좌절에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욕구좌절에 대한 설명력은 22.2%이었다. 모델 II에서 모델 I보다 설명력( $R^2$  Change=.046)이 증가하였고, 따돌림( $\beta=.437, p<.001$ )과 사회적 지지( $\beta=.218, p<.001$ )가 욕구좌절에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의 욕구좌절에 대한 설명력은 26.8%이었다. 모델 III에서 모델 II보다 설명력( $R^2$  Change=.104)이 증가하였고, 따돌림( $\beta=.468, p=.001$ )이 유의하였다. 그리고 독립변수인 따돌림과 중재변수인 사회적지지 하위변인의 상호작용 항을 동시에 투입한 결과 따돌림×구성원지지( $\beta=.456, p<.001$ )와 따돌림×친구지지( $\beta=.376, p<.001$ ) 그리고 따돌림×가족지지( $\beta=.310, p=.003$ ) 순으로 욕구좌절에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의 욕구좌절에 대한 설명력은 37.2%이었다. 즉 항상 함께 생활하는 상관이나 동료 등의 구성원지지가 가장 높은 중재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지거나 친구지지도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나 사회적지지가 중재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4. The mediation effects of social support in the effects of bullying on frustration

Spec.		Model I			Model II			Model III		
		$\beta$	t	p	$\beta$	t	p	$\beta$	t	p
Independent variables	Bullying	.471	9.458	<.001	.437	8.939	<.001	-.468	-3.455	.001
moderating variable	Social Support				.218	4.449	<.001	-.111	-1.666	.097
Interaction	Bullying×Family support							.310	2.997	.003
	Bullying×peer support							.376	3.858	<.001
	Bullying×member support							.456	4.861	<.001
	R <sup>2</sup>		.222			.268			.372	
	Adjusted R <sup>2</sup>		.219			.263			.362	
	R <sup>2</sup> Change					.046			.104	
	F		89.463(<.001)			57.304(<.001)			36.674(<.001)	

#### 4. 논의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에 기초하여 군대 내에서 따돌림 피해발생 가능성이 시사되었고 욕구좌절은 병리적 문제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변인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사회적지지가 중재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인가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따돌림 피해의 평균점수는 2.23점으로 보통이하 수준을 보였다. 이는 공군 병사들의 75%가 따돌림 수준이 2.5점 이하로 높지 않았으며, 3.5점 이상인 경우 따돌림을 실제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하는데 2%에 미치지 않았다[17]. 학교급식 조리원의 경우 동료지원 군의 따돌림 수준은 1.91점에서 2.30점이며, 인간관계 따돌림은 1.89점에서 2.46점이었다[21]. 항공사 승무원의 직장 내 따돌림 수준은 2.10점으로 나타났으며[22], 카지노 종사자의 개인따돌림 2.28점, 직무따돌림 2.08점으로 나타났[23]. 이와 같은 결과는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따돌림 수준은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써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이를 보면 조직 내에서는 조직의 유지를 위해 어느 정도의 따돌림 현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업무상 강압적 언행이나 폭력적 언행 등으로 조직을 유지하고자 하며, 하급자는 이를 따돌림 피해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계급이 낮을수록 따돌림 수준이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상급자로부터 질책이나 동료와의 갈등에 따른 따돌림은 정규일과시간 뿐만 아니라 모든 병영생활에서 빈번하게 경험할 수 있다[17]. 즉 병사들은 24시간 집단생활을 하는 계급형 조직이므로 상사의 과격한 행동이나 언행자체가 하급자에게

위협적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따돌림 피해가 인지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따돌림 피해는 하급자일수록 높게 인식되어진다. 한편 군 병사들은 직무수행 중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질책 그리고 동료들과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와 상급자나 동료들로부터 따뜻한 인간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고 인식할 때 그리고 상급자나 동료의 폭언, 의도적으로 어려운 일 등을 시킨다고 느낄 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계급사회인 군 조직에서 부득이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지만 하급자일수록 군 조직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다소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통제된 생활을 하는 하급자들에게 상급자가 따뜻하게 대할 때 군 조직은 더욱 단단해 질 것이다.

인가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지지의 평균점수는 3.60점으로 보통이상 수준을 보였다. 이는 육군 병사의 사회적지지 평균점수는 3.32점[24], 3.21점[25], 3.45점[26], 지역 육군 병사들의 사회적지지 수준은 3.44점[27] 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육군 항공부대 병사들의 사회적지지 평균점수는 3.77점[28]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한편 공군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지지의 평균점수는 4.33점[12], 가족지지가 3.64점으로 가장 높았고, 상관지지 2.99점, 동료지지 3.29점으로 나타났다[29]. 해병대 병사들의 사회적지지 평균점수는 4.04점[30]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를 보면 육군, 공군 및 해병대 병사들은 보통이상 수준의 사회적지지를 받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이 가장 낮은 21세 이하와 이병의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았다. 이는 19세 미만에서 높다와[24]. 이병이 높았다[28, 31]. 그리고 계급이 낮을수록 높다[24]는 연구가 지지되었다. 또한 공군병사 이병의 수준이 가장 높다

[32]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형제의 수에서는 외동일 때 사회적지지 수준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외동이므로 가족의 지지가 높을 뿐 아니라 친구나 상급자 및 동료들이 관심을 가져줄 때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출생순위가 첫째 또는 셋째 이상일 때 사회적지지 수준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출생순위가 첫째는 혼자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의 논의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이상은 막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족들의 지지가 많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를 보면 보편적으로 계급이 낮은 병사들이 사회적지지를 많이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지지는 개인의 인식차이와 부대의 위치, 부대의 특성 등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즉 부대 위치가 가족들이 면회하기에 용이한 위치에 있다면 가족들의 지지가 높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의 병사들은 가족지지가 다소 부족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지지는 여러 특성들의 영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정서상 계급이 낮은 병사일수록 가족들의 관심이 더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군 조직은 24시간 상급자와 동료들이 공존하는 공간이므로 상급자나 동료들의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욕구좌절의 평균점수는 2.75점으로 보통수준을 보였다. 이는 군 병사들의 욕구좌절 수준이 2.73점[3]이라는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다른 연구에서는 병사들의 존재욕구좌절 2.48점, 관계욕구좌절(상급자) 3.65점, 관계욕구좌절(동료) 3.77점, 성장욕구좌절 3.09점[20]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보다 욕구좌절 수준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1세 이하가 욕구좌절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높았다. 그리고 이병의 욕구좌절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계급 또한 하급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유추되는데 하급자일수록 직무에 대한 어려움과 생활관 내에서도 행동의 제약이 어느 정도 동반되므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관계욕구좌절(상급자)에서 병장 3.88점, 상병 3.64점, 이병 3.56점, 일병 3.49점 순으로 나타났다[20].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상반되는 것이다. 따라서 욕구좌절이 특정 계급에서 높게 나타난다고 단언할 수 없다. 그렇지만 군대에 입대한 후 0~6개월의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신병들은 복무기간이 오래된 병사들 보다 많은 불안과 심리적 스트레스를 느낀다[3]. 그러므로 하급자일수록 욕구좌절 수준

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형제 수가 외동일 때 욕구좌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형제 수는 인성에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안전성에서 외동이 가장 낮다고 하여[33] 본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외동일 경우 부모들의 적극적인 보호 속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타인에게 의존력이 높아졌을 것이다. 하지만 군 조직은 그들에게 별도의 혜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문제 해결능력이 다소 부족하여 쉽게 욕구좌절감을 느끼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직·간접적 피해 경험은 언어폭력 등을 경험하였을 때 욕구좌절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 인권실태연구에서 군 병사들이 선임병에게 구타를 당한경험은 8.5%, 구타 목격 경험은 17.7%, 가혹행위 피해경험 12.5%, 가혹행위 목격경험 22.0%, 언어폭력 피해경험 31.5%, 언어폭력 목격경험 31.8%로 나타나[34] 언어폭력이 가장 많은 피해 유형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구타, 가혹행위와 왕따 등도 욕구좌절의 원인이지만 무엇보다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언어폭력 등을 경험하였을 때 욕구좌절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군대 내의 폭력은 중대한 가혹행위로 간주되어 엄중하게 처벌되므로 낮은 반면, 언어폭력과 같은 행위는 오히려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즉 과격한 폭언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언어적 표현의 횡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욕구좌절감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유추된다.

따돌림 피해가 욕구좌절에 미치는 영향 검증결과 심리적괴롭힘, 인간관계따돌림, 직무따돌림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보면 경찰관의 직장 내 직무따돌림과 인간관계따돌림은 직무만족도가 감소되고 이직의도가 증가하였다[35]. 외식산업 종사자의 직장 내 집단따돌림이 직무만족요인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이직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6]. 즉 따돌림이 직무만족도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욕구좌절이 나타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경험과 집단 괴롭힘 경험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이러한 경험은 전반적 심리적 부적응 및 학교 부적응과 밀접한 상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집단따돌림이나 집단 괴롭힘 혹은 둘 다를 많이 경험하는 피해 청소년들은 자아존중감이 낮고, 우울과 불안 및 외로움 수준이 높으며, 타인 귀인 경향이 높고, 학교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며, 학교 만족도는 낮고, 학교 참여가 저조했다[37]. 이와 같은 결

과를 보면 따돌림 피해는 심리적 부적응 현상으로 욕구 좌절이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군 병사들은 상급자나 동료병사로부터 욕설이나 수치심을 유발 시키는 일, 어려운 업무와 실수에 대한 과도한 폭언 등은 욕구좌절을 상승시키는 가장 큰 원인임을 알 수 있다.

따돌림 피해가 욕구좌절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지지의 중재효과 검증결과 따돌림×구성원지지, 따돌림×친구지지, 따돌림×가족지지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찰관의 직장 내 인간관계따돌림과 직무만족도 사이에서 자기존중감이 조절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38] 그리고 직장 내 따돌림 수준을 낮춤으로써 자기존중감을 높일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21]. 즉 개인적 가치인 자기존중감이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은 따돌림 피해를 느꼈을 때 타인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지지가 있으면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의 집단따돌림은 아동의 사회적 지지를 통하여 아동의 학교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9]. 집단따돌림 경험 청소년들 내에서도 사회적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청소년들이 따돌림 가해 동조를 적게 하고, 심리적 회복이 빠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40]. 이와 같은 결과는 사회적지지가 높으면 따돌림 피해 인식을 감소시켜 욕구좌절감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한편 군 조직 내에서 병사들에게 일어나는 집단 따돌림 현상은 병사들의 직무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결국 군의 전투력 유지에 저해요인이 되기도 한다[41]. 그리고 병사들의 군 생활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급자 및 동료의 적극적인 지지와 병사 개인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운영되어야 한다[7]. 따라서 따돌림 피해는 병사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군 조직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따돌림 피해를 인식하는 병사들에게는 가족이나 친구들의 지지보다 항상 함께 생활하는 상사나 동료들의 지지가 적극적일 때 원만한 군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 간부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즉 면담 등을 통하여 병사들의 고충을 파악함으로써 문제가 더 진전되지 않고 완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중재효과는 개인의 문제해소에 중요한 요인이지만 나아가 군 조직 활성화와 구성원들의 단합에도 기여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상의 결과에서 차이와 영향력을 확인할 수 는 있었으나 이것을 직접적으로 논의할 비교자료가 미미하였고

연구대상자 수가 적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이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연구결과에 대하여 검증할 수 있는 보다 심층적이고, 반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5. 결론

본 연구는 육군 병사들의 따돌림 피해가 욕구좌절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사회적지지의 중재효과를 검증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에서 따돌림 피해의 평균점수는 2.23점으로 보통이하 수준으로 높지 않았다.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하급자일수록 따돌림 피해 점수가 높았다. 사회적지지의 평균 점수는 3.60점으로 보통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21세 이하와 이병의 사회적지지 점수가 높았다. 욕구좌절의 평균점수는 2.75점으로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하급자일수록 욕구좌절 점수가 높았다. 따돌림 피해가 욕구좌절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따돌림의 하위변인 모두에서 욕구좌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피로감이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으며 인간관계따돌림, 직무따돌림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병사들은 상관으로부터 과도한 폭언이나 수치심을 느끼는 업무수행 등을 부여 받았을 때 욕구좌절감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지지의 중재효과 검증에서 따돌림×사회적지지 하위변인 상호작용 항 모두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병사들은 따돌림 피해를 인지하고 있지만 사회적지지가 적극적이면 따돌림 인식이 감소됨을 알 수 있다. 특히 군대 내에서 함께 생활하는 구성원인 상급자나 동료들의 지지가 적극적일 때 상호작용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따돌림 피해와 욕구좌절의 관계를 파악하고 사회적지지의 중재효과를 검증하여 따돌림 피해인식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상담 등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따돌림 피해를 인식하는 병사들의 예방적 방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따돌림 인식 병사들을 이해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References

- [1] Rosenzweig. S, Fleming. E, Rosenzweig. L, The children's form of the Rosenzweig Picture-Frustration Study, *Journal of Psychology*, 26, pp.141-191, 1948. DOI: <http://dx.doi.org/10.1080/00223980.1948.9917400>
- [2] E. A. Ma, E. J. Son,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and university students depression : The mediating effect of autonomy need thwarting and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5(5), pp.2035-2051, 2014. DOI: <http://dx.doi.org/10.15703/kjc.15.5.201410.2035>
- [3] J. D. Hong, N. M. Yang, An effect of soldier stress on suicidal ideation : Self-esteem, alienation, frustration mediating effect,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4(2), pp.1423-1441, 2013. DOI: <http://dx.doi.org/10.15703/kjc.14.2.201304.1423>
- [4] J. M. Ha, Y. J. Song, H. U. Nam, The Effect of Perceived Burdensomeness and Failed Belongingness to Elderly Suicidal Ideation,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55, pp.65-84, 2012.
- [5] M. H. Lee, S. B. Je, Characteristics of Children's Frustration Expressed in Their Tree Drawings, *Korean Journal of Art Therapy*, 17(4), pp.835-860, 2010.
- [6] Y. W. Yoo, The Affecting Factors on the Military Life Satisfaction, *Korean Academy of Military Social Welfare*, 5(2), pp.5-30, 2012.
- [7] J. G. Jang, J. L. Go, K. S. Kim,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Family Health, Self-esteem, Social Support Perceived by Young Drafted Marines and Adaptation to Military Life, *Korean Academy of Military Social Welfare*, 7(1), pp.97-125, 2014.
- [8] D. H. Um,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Adjustment of Soldiers in the Military Service, *Journal of Social Work Practice*, 11, pp.31-61, 2012.
- [9] C. H. Lee, O. H. Kim, A Study On The Precedent And Consequence Of Alienation In The Military : Focusing On The Phenomenon Of Soldier's Mobbing, 16(3), pp.209-233, 2009.
- [10] J. H. Lee, S. Y. Jeung, K. J. Song, Concept Mapping Study about the Motives of Verbal Abuse in Military Lif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3(4), pp.1767-1780, 2012.
- [11] G. J. Kim, G. W. Park, S. H. Lee, Mobbing Value Algorithm for Improvement Victims Management : based on Social Network in Military,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14(11), pp.1-12, 2009.
- [12] E. Y. Cho, W. I. Kim, Relationship between Mobbing and Adjustment to Military Life among Military Soldiers : Mediating Effects of Unconditional Self-Acceptio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6(5), pp.473-486, 2015.
- [13] S. k. Yoon, C. H.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Self-concept and Ego-resilience of middle-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0(10), pp.2917-2922, 2009. DOI: <http://dx.doi.org/10.5762/KAIS.2009.10.10.2917>
- [14] S. Y. Lee, A study of correlation between stress from military life and adjustment : focused on emotional perception and social support,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Seoul, 2011.
- [15] G. S. Lee, M. A. Cho, The Effects of Attachment Anxiety and Attachment Avoidance on Military Life Satisfaction among Soldiers: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2(5), pp.161-190, 2015.
- [16] J. S. Choi, A Study on the Causes and Effects of Mobbing in the Organization : Focusing on the Organization,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Seoul, 2007.
- [17] Y. I. Lee, The Effects of Object Relations with Parents on Adjustment in Military Life : Focussing on the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PhD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2013.
- [18] Leymann, H, Mobbing and psychological terror at workplaces, *Violence and Victims*, 5, pp.119-126, 1990.
- [19] Dubow. E. F, Ullman. D. G,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 pp.52-64, 1989. DOI: [http://dx.doi.org/10.1207/s15374424jccp1801\\_7](http://dx.doi.org/10.1207/s15374424jccp1801_7)
- [20] H. J. Cha, A Study on the Soldiers Reaction to Stress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nfluenced by Needs Frustrations, master's thesis, National Defense University, Seoul, 2005.
- [21] H. Y. Lee, The Effect of Workplace Mobbing on Self-esteem of School Foodservice Employees with Different Level of Coworker Support, *The Korea Society of Management Consulting*, 15(2), pp.173-182, 2015.
- [22] Y. O. Park, Determinant and consequence of workplace mobbing for flight attendatn,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2012.
- [23] Y. S. Lim, Effects of Bullying in the Workplace of the Casino Enterprises Turnover Intention and Job Satisfaction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Personality Type, master's thesis, Sejong University, Seoul, 2014.
- [24] D. S. Shin, A study on the influence of home defense troop soldiers' family solidarity and childhood abuse over their military life : focused on the intermediary effects of the social support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2009.
- [25] S. W. Koh, The Study on the Influence of Melancholy in the Stress of Soldiers: Self-esteem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master's thesis, Honam University, Gwangju, 2013.
- [26] Y. E. Kim, The impact of army soldier's parent attachment on military life adaptation, master's thesis, Seoul Cyber University, Seoul, 2014.
- [27] B. K. Kum, A study on the effect of soldier's self-esteem, social support and stress to the adjustment to life in the barracks, mas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Jeollabukdo, 2010.
- [28] J. Y. Bae, The Effects of Soldiers'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on Their Adjustment to Military Life,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Gyeongsangbukdo, 2010.

- [29] H. C. Oh, Effects of the social support perceived by airmen on the adjustment to military life through the mediation of self-efficacy and ego-resilience,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2012.
- [30] J. G. Jang, J. L. Ko, K. S. Kim,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Family Health, Self-esteem, Social Support Perceived by Young Drafted Marines and Adaptation to Military Life, Korean Academy of Military Social Welfare, 7(1), pp.97-125, 2014.
- [31] J. M. Mo, J. Y. Bae, Health Promoting Behaviors and Social Support in Korean Soldiers, Korean Review of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11(7), pp.79-93, 2015.
- [32] B. J. Kim, The effect of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soldiers' adaptation to military life and distinctive features of mental health, master's thesi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Gyeongsangnamdo, 2010.
- [33] C. S. Ryu, J. H.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Elementary School Students' Personality and Parents' Rearing Attitude by the Sibling Composition of them, The Journal of Education, 26(1), pp.107-138, 2006.
- [34] T. H. Lim, Survey Report for Human Rights in the Military, master's thesis, Sungkonghoe University, Seoul, 2013.
- [35] S. Y. Oh, H. B. Kim, A study on an influence of police officers'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s by workplace bullying,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12(3), pp.23-44, 2015.
- [36] T. K. Na, I. H. Jeon, The Effect of Workplace Bullying on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of Kitchen Employee in Family Restaurant, Korean Journal of Culinary Research, 16(5), pp.37-49, 2010.
- [37] H. W. Kim, Psychological and School Maladjustment resulted by Peer Rejection and Peer Victimization among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5), pp.321-356, 2011.
- [38] S. Y. Oh, W. B. Park, A study of police officers' self-esteem regulation effect about workplace bullying and attitude in job,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14(4), pp.243-268, 2015.
- [39] H. J. Lee,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 between Bullying and School adjustment in the Elementary School 5,6th Grade Children,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2008.
- [40] J. S. Kim, The Relationships Among Bullying Experience, Social Support, Bullying Conformity Types, and Problem Behavior of Middle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ungcheongbukdo, 2015.
- [41] C. H. Lee, O. H. Kim, A Study On The Precedent And Consequence Of Alienation In The Military -Focusing On The Phenomenon Of Soldier's Mobbing,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Research, 16(3), pp.209-233, 2009.

신 소 흥(So-Hong Shin)

[정회원]



- 2016년 2월 : 대구한의대학교 일반 대학원(사회복지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 박사과정 중
- 2015년 3월 ~ 현재 : 경북과학대학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자연과학, 사회과학